

자연속의 시간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과 통한다. 아름다움이란 사람에게 애뜻한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인생 70이라 말하는 그 한 생애는 짧은 것 같으면서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한 생애라는 건 여로에서 우리는 온갖 경경을 만나고 슬한 사건과 부딪힌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시간 고난과 절망을 수 없이 경험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세월의 인연을 넘어 한 생애를 마감한다. 수 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어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열망의 힘이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고 나를 정한하게 걸어갈게 한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싶다. 현재의 삶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현재의 만남의 풍경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를 기다려줄 것인가. 기차나 버스는 결코 떠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돌아오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쁨과 슬픔이 똑같은 아름다움임을 알고...

살을 향한 끝없는 소망은 인간이 지닌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이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아름다움은 우리를 손짓한다. 가장 슬픈 시간의 장소에서도 가장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도 아름다움 만큼은 우리를 지킨다. 황혼의 별판을 달려가던 원형열차,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을 싣고 떠나는 기차의 뒷모습마저 아름다울 때가 있다.

비 바람 몰아치는 날 창을 열고 생각해 본다. 더 신선한 새벽 더 빛나는 햇살 그것들이 마련되기 위하여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을 깨달게 된다. 그것은 우리들 삶의 한 모습과도 같다. 아름답지 않은가. 진실로 아름답지 않은가. 가까이에서 더 먼곳 더 먼곳에서 가까이 교차하는 모든 빛과 소리와 맑음과 어둠이 정녕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가. 서명석 <동양회화>

무 상

주부신행담

'시험을 잘 보았든 못 보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일단 치렀으니 출가분하다.'

학창시절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 항상 머 굴렸던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아니 출가분한 것은 그때와 같지만 정말 결과 만큼은 좋게 나타나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공인중개사라는 일을 발견했고 자격증 취득고사기 작년으로 있다는 것을 안것은 불과 3개월 전이다.

남들이 2년씩 해온 공부를 나는 3개월간 매달렸고 지금은 1차에만 합격까지는 희망을 갖고있다. 내가 부딪힌 중간고사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부담때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 찾아야 할 또다른 일과 가정으로서 생업으로 딱 한 줄과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6개월은 내게 참으로 엄청난 시간이었다. 35년이라는 짧은 인연을 이생에서 지낸 남편을 보내고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에게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짓눌려 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받아 그 기간밖에 숨길 수 없는 그의 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마음 속에서 그를 말치 보내라는 주위분들의 충고도 있었지만 미수를 바라보는 천정 어머니께서 내게 보내는 끝없는 축원함이 감당기 어려웠고, 죄송스러

움에 그를 잊은 척 행동했다. 사실 장례이후 한번도 천정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적이 없었고 참없는 네살짜기 아들앞에서조차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변해보인다. 형제 친척들이 다들 그가 잠시 외국 이라고 나가있는 듯 일상에 충실하고 있다. 나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으로 무상이라는 의미를 더 높이 쌓았다.

특히 남편에게 새어머니인 사이머니께서 사시는 법에서도 내가 어찌 살아야겠다는 설계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기간동안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체득하며 확신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내 삶을 이끌어주는 탄탄한 버팀이 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천정어머님은 독실한 불자시사다. 신심도 장하시지만 인생사 이치를 부처님가르침에서 찾고 개인 분이다. 그저 내가족의 복만 구하는 척

어도 성숙하지 못한 불자가 아니란 뜻이다. 장녀인 내가 고교 2학년일때 아버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1남2녀의 우리들을 길러오셨다. 뼈뚫한 살담에도 응려 초하루면 절에 가 부처님께 공양올렸고 기도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신앙심 속에 아주 자연스레 불교를 받아들였고 대학에 들어가 비로소 성인노릇을 할 즈음에는 불교계 간행물들을 구독해 보기도하고 법회에도 참석하기

법문듣고 주위의 불교책이나 간행물들을 살피는 소극적인 믿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서 일했다. 별다른 보는데 당시 내가 근무했던 상봉동에서 유자로 사업하시는 시아버님이 고객이었다. 매일 들르시다시피 하셨던 시아버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1년연하의 남편을 만났다. 장남인 내 남편을 분신처럼 더 각별하게 여기시면 아버님은 머리리감을 직접 고르시겠다고 아들과 굳게 약속을 하셨단다. 나는 다른 여자를 처럼 그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님 마음에 꼭 든 아들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렇게 결혼한 것이 80년 일이다.

남편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국민학생 시절부터 지금의 어머니를 맞은 고교 3학년때까지 흠아아버님의 손에서 컸다. 시집을 보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챙겨주시는 것도 아버님이셨다. 위로 누님이 계셨지만 손수 일일이 보살피며 마음이 편하신 아버님의 자식 사랑방식으로 남편은 아버님과는 '진한'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며 성장했다.

두사람은 인간적으로 서로를 너무도 좋아했다. 우리 신촌 살림집은 아버님이 평소 쓰신 서예작품을 6점이나 걸어둘 정도로 아버님의 숭경이 배어있었다.

이 두 자 <불입사 신도>

35년이란 짧은 인연을 이생에서 지낸 남편을 저승으로 보낸후 나는 그의 업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시작했다. 참으로 학업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던 대학친구. 덕분에 주안 용화선원에서 매일 송담 콘서트법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어떤 아들은 내 모습에서 '불교적 냄새'가 풍긴다고 얘기한다. 평소 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별달리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내 성격이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그렇지는 내 얼굴이 무척 맑아있던 것 같다. 그때 내 신심은 솔직히 희박했고 다만 불교정서가 부담없이 좋았었다. 그래서 청년회나 대학생회나 하는 조직활동은 하지 않았다. 조용히

KASIBHARADVAGSUTTA (바라드바지경)

◆ So it was heard by me : At one time Bhagavat dwelt in Magadha at Dakkhinagiri in the Brahmana village Ekanala. And at that time the Brahmana Kasibharadvaga's five hundred ploughs were tied (to the yokes) in the sowing season. Then

Bhagavat, in the morning, having put on his raiment and taken his bowl and robes, went to the place where the Brahmana Kasibharadvaga's work (was going on). At that time the Brahmana Kasibharadvaga's distribution of food took place. Then bhagavat went to the place where the distribution of food took place, and having gone there, he stood apart.

The Brahmana Kasibharadvaga saw Bhagavat standing there to get aims, and having seen him, he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said this to Bhagavat :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미가다국(지금의 인도 라즈기르)의 남쪽 산기슭에 있는 한 마을에 계셨다. 밭을 갈고 있던 바라드바라드바지는 식을 뿌리려고 오백자루의 쟁기를 소에 매었다. 그때 스승은 아침밥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 밭그릇을 들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드바라드바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라드바라드는 일꾼들에게 음

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스승도 음식을 나눠 주는 곳에 가서 곁에 섰다. 바라드바라는 스승이 음식을 얻기 위해 밭그릇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바라드바라는 이렇게 말했다.

*dwell (dwell)의 과거분사형) 거주하다. *raiment (=clothing 구어체) 옷. 한영무 기자

GRAND FANTASIA

꿈의 나라를 떠나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헌정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철을 사용한 라프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박을 받고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년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전력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떠나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부처의 눈을 닮아 자신이 비어있음을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잠착 놓여나게 될 것이며 아랑, 아만, 아상, 욕심 따위에서 질차 자유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세속에 전념하면서도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진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위 스트레스 없는 삶도 가능해질 것이다.

내 세울 게 없어야 벗어난다. 내 세울 게 있다면 벗어날 수 없다. 아니, 내 세울 게 없다면 벗어났으니 벗어 나지 못했으니 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내 세울 게 없을 때 도가 있다고 하셨다. 선사들은 종교가는 삶, 방학학의 삶을 가르쳤다. 놓을 그 무엇이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평등하니 내 세울 게 없는데도 내 것이라고 할 그 무엇이 있는 양 잔뜩 울겨쥐려고만 하니가 놓으라고 한 것이다.

만 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해도 평등하니까-근본에 있어서는 오직 비어 있음일 뿐이다. 까 내가 했다는 아상을 붙일 데가 없다. 아무리 붙여도 해도 생명의 근본원리엔 철석이 불가능하다. 붙일 게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업장 놓을 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는 일이다. 처하는 곳곳마다, '나'라는 딱지를 붙여 놓는다. 업장을 쌓아 놓는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업장 쌓기로 보낸다.

앞으로 가라니까 한사코 뒤로만 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토록 힘들여 일러 주었는데도 우리는 언제 천둥쳤느냐고 우기는 귀머거리로 살고 있는 셈이다.

협찬: 김복수 · 강우진